

중국과 인도의 건설시장 - 그 기회의 갈림길

박 형 원 | 해외건설협회 지역1실장

시장 개황

인구 13억명의 나라 중국, 12억명의 인도, 단순한 수치만 보아도 이들 두 나라는 분명 우리에게서 기회의 땅임이 분명하다. 국토 면적만 보아도 중국 960만km², 인도 328만 7,000 km²로 전 세계 지표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실로 대국의 위상을 절감케 한다. 양국의 건설시장 규모를 비교해보면, 2011년 기준 중국은 1조 850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인도는 4,218억 달러로 중국에는 뒤지지만 세계 4위의 건설시장 규모로 내년쯤이면 세계 3

대 건설시장의 반열에 올라설 것으로 관측된다. 수치상 양국의 건설시장 규모를 합산하면 전 세계 건설시장의 20%를 상회하는바, 향후 세계 건설시장은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과 인도 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 확실시된다.

사업 환경

중국의 경우 이러한 절대적인 시장 규모를 보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한·중 수교 20년이 되도록 만리장성을 제대로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매

년 10억 달러 내외의 적잖은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공공공사는 단 한 차례도 수주하지 못한 채 대부분 국내 그룹사 또는 제조업체가 투자하는 공장 공사와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가.

우선 중국의 건설업은 면허제로 모든 공종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면허가 없으며, 각 공종별로 원도급을 수행할 수 있는 특급~3등급까지의 면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 등급 차이는 도급 규모 및 공사 수행 가능 범위를 의미하는데 면허 취득에서부터 면허 등급 상향 조정에 필요한 공사 수행 실적도 자국 실

양국 건설시장 규모 비교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국	8,518	9,713	10,850	12,118	13,612	15,148
인도	3,148	3,663	4,218	4,797	5,529	6,323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BMI).

1) 주택, 도로, 철도, 항만 등 총 12개 공종으로 분류.
2) 별도로 총 60개의 단종 면허 존재.

중국·인도에서의 한국 건설업체 수주 비교

(단위 : 억 달러)

구분		합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7월
중국	건수	690	359	75	99	78	65	39
	금액	119.6	71.6	22.5	8.2	6.0	10.6	0.7
인도	건수	158	19	8	15	12	19	4
	금액	150.4	85.2	3.3	12.9	31.6	9.8	7.6

적만 인정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에서 수주를 가장 많이 한 국내 대형 건설업체 A사는 최하등급인 3등급부터 출발하여 10여 년 가까이 중국에서 국내 그룹사 공사 및 제조업체 공장 공사 등에서 시공 실적을 쌓았지만 이제야 주택건축공사의 1급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중국 건설시장의 진입 장벽은 많지만 이를 더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한편, 인도는 중국과 달리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느슨하지만 인도 특유의 상술 및 상 관행,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 과도한 민주주의 정착, 관료주의 팽배 등 관습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각종 리스크가 외국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가 널려 있지만 리스크를 얼마나 회피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며 대형 사업의 경우,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얼마나 메워주느냐가 수주의 성패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한편, 우리 기업 수주는 2008년 3.3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에는 31.6억 달러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9.8억 달러로 주춤했지만 금년에는 20억 달러 내외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수주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인도는 그룹사 투자 공사 이외에도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발전소, 석유 화학 등 플랜트 중심의 수주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상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시장 동향 및 전망

과거 건설산업을 통한 경기 부양과 양적인 인프라 확충에 치우쳤던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 (2011~15)을 통하여 수출 위주의 제조업에서 내수시장 위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친환경과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체제 변환은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제12차 계획'이 체제 변환을 위한 초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계획에는 서민주택 건설, 교통 인프라 증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증설 등 건설부문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천문학적인 예산도 배정되었지만 과거 서기동수(西氣東輸)³⁾, 남수북조(南水北調)⁴⁾, 서전동송(西電東送)⁵⁾, 청장철로(靑藏鐵路)⁶⁾ 등과 같은 장기적인 초대형 국책사업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중국 건설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과거 글로벌 경기 침체시

3) 서부 지역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동부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1,475km 관을 매설하는 공사.
 4) 남부의 풍부한 담수 자원을 물이 부족한 북경과 천진 등 북부로 끌어오는 사업으로 양쯔강에서 출발하여 1,150km의 수로를 건설하는 사업.
 5) 서쪽의 양쯔강과 황하의 풍부한 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동쪽의 북경(北京)과 천진(天津), 그리고 상해(上海) 등으로 송전하는 공사.
 6) 청해(靑海)성에서 서장(西藏)자치구의 라사(拉薩)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142km의 철도 공사.

경영 정보

별었던 인프라 중심의 경기 부양책 여파로 10%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2015년부터는 5%대의 저성장 기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교통 인프라 부문은 일본과 같은 성숙기의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 수요가 풍부하지만 과거 20여 년 동안 다수의 대형 국책사업을 벌여온 만큼 점차적인 수요 둔화가 예상된다.

반면, 에너지 인프라시장 규모는 오는 2015년 전력 및 송배전망, 파이프라인, 수처리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전체 인프라 산업의 68.5%에 해당하는 1,8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전력부문은 전체 인프라 산업의 54.4%를 점유할 전망이며, 정부가 이 기간 동안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수리 및 수처리 시설 부문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북부 지역의 고질적인 물 부족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총 170억 달러 규모의 남수북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수자원 부족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력 발전소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BMI가 발표한 2012년 아시아 국가 건설시장 전망에서 인도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를 받았다. 중국 건설시장이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했다면 인도는 이제 걸음마 단계로 볼 수 있어 시장 잠재력 측면에서는 중국을 앞선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올 4월 인도는 '제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2012~17)이 착수되었는데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사회간접시설 개선을 위해 무려 1조 달러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최대 현안 사항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10만MW의 신규 전력 증설을 목표로 총 1,08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전력 프로젝트 발주는 화력 발전소 중심이었으나 향후에는 복합화력 발전소 및 원전 발주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원자로 20기(4,780MW)를 운영 중인데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과 협력하여 원전 6기(4,800MW)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을 한층 강화하여 오는 2032년까지 40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원자력 발전 능력을 6만 3,000MW로 늘릴 방침이다.

주거부문은 이 기간 동안 총

3,700만호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비주거부문은 지가가 높은 뭍바이, 뉴델리 인근, 하이데라바드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60층 이상의 초고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부문은 경제 성장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및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정유공장, 비료공장, LNG 터미널 등 대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발주될 예정으로 EPC 사업 능력이 뛰어난 우리 기업의 선전이 기대된다.

진출 확대 가능성 및 제언

이처럼 중국과 인도 양국의 건설 시장 규모, 미래 건설 수요를 가늠해 보았을 때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수주의 질적 측면인데 중국의 경우 제도적인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현 상태에서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이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서두르고 있어 시장 개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최근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실효성 있는 협상 전략을 도모한다면 개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는 시장이어서 더 이상 내어줄 협상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FTA 협상에서 건설부문에 관한 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중국에게 최소한도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크게는 면허 등급 산정에 필요한 실적을 자국의 실적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것과 작게는 과거 중국이 시행한 바 있는 투자 사업에 대한 임시 자질증(임시 면허에 해당)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임시 자질증 발급은 중국 입장에서 우리 기업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협상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면허 등급 조정에 필요한 시공 실적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어 공공공사 참여의 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중 FTA 협상 추진시 국내 시장 보호 측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세계 최대 건설시장의 빛장이 풀려 중원에서 펼쳐질 진검 승부를 보고 싶다.

한편, 인도는 앞서 설명하였던 관습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의 진출 애로 요인이 혼재해 있다. 이러한 애로 요인은 외국 업체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애로 요인으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첫째, 철저한 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도 건설시장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므로 진출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공종을 선정한 후 철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능한 현지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 인도의 독특한 상술과 비즈니스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기업들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고, 신속한 현지 적응을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를 통한 사업 노하우를 조속히 습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꾸준한 수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인도에서의 사업은 인내와 의 승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늦은 행정 처리로 상상할 수 없는 지연도 야기되므로 결국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도 정부가 목표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

원 마련이 관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는 상당 부분이 민간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PPP 형태로 발주되고 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동 지역의 EPC 공사 수주가 우선순위가겠지만 인도를 포함하는 아시아권 일부 국가,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는 자원 조달은 물론, 공사 완공 후 운영까지 책임을 지는 BOT, BOO 등의 사업 영역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 전문 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여 새로운 도전 무대로 오르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된다.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한 디벨로퍼가 육성되어 수익성 있는 양질의 해외 사업 수주뿐만 아니라 시공사들에 비하여 해외 시장 진출이 미미한 엔지니어링사들에게 활로를 터주고, 갈수록 협소해지는 국내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상의 문제점, 경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야기될 수 있는 수주 여건상의 문제점 등을 해소해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CERIK